

과학과 예술로 풀어내는 물질의 세계

문화전당·고등과학원 주최
국제 융복합 토론회 '매터리얼'
23~27일 문화창조원 등서
연구원·철학자 전문가 참여



'매터리얼(MatteReal)' 포스터

과학은 'Matter(문제)'를 던지고 예술은 'Real(실재)'가 된다. 과학과 예술의 접합지점에 있는 물질의 존재에 대해 예술가, 과학자, 인문학자, 의료인문학자, 철학자, 큐레이터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과 고등과학원(원장 이용희, 이하 KIAS)이 공동 주최하는 과학과 예술에 관한 국제 융복합 심포지엄과 워크숍 '매터리얼(MatteReal)'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 2관과 KIAS 1호관 1503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매터리얼' 워크숍은 예술과학 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ACC와 국내 과학 분야 연구기관 최초로 초학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KIAS의 만남으로 화

소에서 반(反)물질을 연구하는 마이클 도저(Michael Doser), 건축가이자 인터랙티브 디자이너인 쾨리히 예술대학교의 카르멘 프라니비치(Karmen Franivonic), 아리스 일렉트로니카(2017) 및 재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2007) 등에서 수상한 바 있는 예술가 드미트리 겔판트 (Dmitry Gelfand) 등 7인이 참가한다.

국내 초청 연사로는 2016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가 수여하는 '플라이드 국제상'을 수상한 김윤철 작가(고등과학원 초학제프로그램 독립연구단 연구책임자), 고등과학원 최재경 교수와 김재환 교수를 비롯하여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창안한 KAIST의 정하웅 석좌교수, 의료인문학자인 경희대 김태우 교수 등 12인이 참여한다.

또 '매터리얼'의 의미처럼 물질과 사건 '매터(Matter)'와 물질과 사건의 존재를 의미하는 '실재(Real)'에 관해 KIAS의 초학제프로그램 독립연구단 매터리얼리티(Matteriality)가 지난 2년간 진행해온 물질학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담론을 나눈다.

이번 행사는 23일 비공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 일정에 일반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24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는 물질과 물질성에 관해 네 개의 세션(사물성(Thingness), 얽힘(Entanglement), 매터소피(Mattersophy), 유체성(Fluidity))으로 구성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과 함께 우주의 입자를 주제로 한 하이브리드 랩 퍼포먼스와 미키 유이(Miki Yui)의 실험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26일과 27일에는 국제 심포지엄이 고등과학원에서 개최된다. 초청 연사들은 ACC에서 다룬 사물성, 얽힘, 매터소피, 유체성에 관한 현재의 논의들과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예술과 과학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물질에 관한 담론을 공유한다.

각 행사에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551, 02-958-263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中 우주선 추락, 한국 피해 없을 듯”

이르면 3월말 예상되는 중국 우주 정거장 텐궁 1호의 추락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텐궁 1호가 고도 70~80km 상공의 대기권에 진입할 때, 대기 마찰열에 의해 해체돼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파편이 지구로 낙하해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공 우주물체가 추락해 인명피해가 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는 점도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텐궁 1호가 추락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텐궁 1호의 추락 가능 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인데, 남한 면적은 이 지역의 360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 최초의 우주정거장인 텐궁 1호는 지난 2011년 9월 발사돼 고도 340km에서 우주인 체류 및 우주화물선도

등 다양한 시험을 진행해왔다.

2016년 3월 임무를 마친 이 우주정거장은 지구 중력으로 인해 점차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현재 고도는 216km다.

이에 전문연을 비롯한 세계 우주 감시 기관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 텐궁 1호가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텐궁 1호의 무게는 8.5t, 길이는 10.5m, 직경은 3.4m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텐궁 1호의 추락에 대비, 천문연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전문가들과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점검하는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천문연은 텐궁 1호 추락 예상 일이 결정되면, 이날의 1주일 전부터 천문연 우주위협감시센터 홈페이지(www.nssao.or.kr)와 트위터(@KASJ_NEWS) 등에서 실시간으로 추락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외국보다 비싼 것도 억울한데...무상보증·AS 열악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성 갤럭시S9, 애플 아이폰X 등 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미국 등 주요시장보다 비싼데 더해 제조사들의 보증, 보증 서비스 조건도 열악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온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9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스마트폰 단말 케어 프로그램인 '삼성 모바일 케어'를 준비중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갤럭시S8 사전예약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지원했고 갤럭시S9 이후 플래그십 모델에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월 5300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 보증 1년 연장, 배터리 교체, 액정 파손 수리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료 서비스이지만 삼성전자는 비슷한 내용의 '버틀러 서비스'를 작년년부터 중국에서 운영하면서 이 서비스가 임박해 따라 받지 않고 있다.

버틀러 서비스의 기간은 18개월로, 24개월까지 가능한 국내 케어 프로그램보다 기간은 짧지만 액정 교체가 1회 무료로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중국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미국에서 국내보다 AS(사후서비스) 정책 조건이 좋다.

LG전자는 작년 전략 스마트폰 G6 출시

■ 스마트폰 보험·보증 서비스 조건 국내외 비교

삼성		LG		애플	
배터리 교체·수리비 할인 '모바일 케어 서비스'		1년 이후 AS 서비스		유료 제품보증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	
국내	중국	국내	미국	국내	해외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없음	있음

때부터 미국 구매 고객에게 무상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국내외 스마트폰 무상 보증 기간은 대개 1년이지만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2년간 무상 수리 혜택을 볼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AS 정책이 다른 이유를 두고 “시장 경쟁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역시 한국에서는 자사 유료 제품보증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출시하

지 않고 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사용자 과실로 아이폰이 망가져도 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작년 아이폰X 등 제품 고가화로 수리 비용도 크게 올라가면서 수요가 늘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애플스토어가 있는 국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 1월 국내 애플스토어 개장 이후 한국에도 도입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삼성 모바일 케어' 프로그램.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케어 플러스는) 현재 서비스되지 않는 상태이며 계획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0)씨는 “제조사들이 시장 별로 가격, 출시일정을 차별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 시장만 매년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제조사들이 품질을 강조하는 만큼 무상 보증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과학관 홍보소통단 '루체스타'의 지난해 활동 모습.

광주과학관, 청소년·대학생 홍보단 모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5월 15일까지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2기 단원들을 모집한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첫 홍보소통단은 지난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국립광주과학관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도 국립광주과학관을 루체스타를 대폭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루체스타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주요 테마인 빛을 의미하는 'Luce'와 별을 뜻하는 'Star'의 조합으로 과학과 예술적 소양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를 상징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뛰어난 재능을 갖춘 루체스타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대 100명까지 선발하는 이번 홍보소통단은 초·중·고 부문 80명, 대학생

부문 20명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인원은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소통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초·중·고등 학생들은 홍보소통단원으로서 과학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하고 학교를 비롯해 주변에 과학관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홍보아이템을 기획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과학관을 홍보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 무료 입장, 홍보 전문가 강연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루체스타 단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필수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960-617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나주, 2층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200만원~~ → 6200만원 (2018년 3월 31일까지)
- 문의. 010-3605-5000